

도민 위한 다채로운 국악 공연 펼쳐진다

전북도립국악원, 상반기 공연 18회 · 하반기 시·군 순회 · 방문공연 재개

전북도립국악원(원장 박현규)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4월 말부터 공연장의 전 좌석을 개방해 도민들의 오랜 공연 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예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된 '중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북교육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전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도내 10개 중학교 1,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창과 관현악, 국악관현악, 국악가요 등 다채로운 국악연주와 비보이 공연까지 신나는 공연무대로 마련된다.

또한,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은 단막창극 '수궁가', '춘향가', '배비장전' 및 부부의날 기념 무용단의 '어허둥둥 내 사랑' 공연과 관현악단 국악콘서트 'THE 도악'을 포함하여 예술3단이 합동으로 꾸미는 '예술로 노닐레라~'까지 상반기 목요일국악예술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5월 18일 펼쳐지는 교수음악회는 '용·복합 예술 협업 프로젝트'로 예비 국악인들의 열정적인 꿈의 무대로 채워질 '관현악단 청소년·대학생 협연의 밤'은 각각 5월 24일과 6월 12일에 열린다.

이 밖에 6월 25일 익산예술의전당과 10월 28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시·군 순회공연을 준비 중이며, 7월 8~9일 올해 첫 정기공연 창극 '정, 꽃이 되다'를 앞두고 창극단원들의 연습이 한창이다.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과 협업해 추진하는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는 올해 전북도, 전북도립국악원,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주몬트리올 대한민국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오는 6월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주요



전북도립국악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4월 말부터 공연장의 전 좌석을 개방해 도민들의 오랜 공연 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단막창극 '수궁가' 모습)

외교계기념사업 공연단 해외파견 공모사'에 도립국악원이 선정돼 올해 10월 중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칠레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 국악을 세계에 알리고, 도립국악원의 위상을 드높인다.

박현규 원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복지시설 방문공연 및 시·군행사 공연지원도 하반기에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

며 "팬데믹 시대 힘든 시기를 보낸 도민들의 우울한 정서를 심명하는 국악공연으로 전환시키고, 도립국악원이 일상회복 추진의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도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공연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3년 만에 대면으로 만나는 '어린이날 대축제'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서 6개 분야 63개 체험·놀이 프로그램 진행

전북도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대축제'를 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창의체험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대축제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다.

창의체험관은 도내에 거주하는 어린이 600명을 오전, 오후 각 300명씩 분산 초대해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기념식 및 식전 인형극과 6개 분야 63개의 체험·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험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줄다리기, 바구니 공 던기와 같은 '단체놀이', ▲바람개비와 왕딱지 만들기, 비석치기를 즐기는 '전통놀이', ▲착시판이와 매직카드 만들기 등 놀이와 과학을 즐기는 '과학체험', ▲체험관 내 상설

프로그램을 즐기는 '체험관 상설체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놀이'와 도내 기관들이 함께하는 '기관 홍보 및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된다.

어린이날 대축제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25일부터 창의체험관 누리집(<https://tchid.kr>)을 통해 선착순 신청해야 한다.

창의체험관은 당일 행사에 체험 부스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사전신청 등록 차량만 행사장에 입장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귀의 창의체험관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게 돼 대단히 뜻깊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와 체험행사를 준비해 선물같은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국한지공예대전 대상에 허석희 작가

전통부문 '원앙장' 수상

허석희 작가(사진)가 제 28회 전국한지공예대전에서 원앙장을 출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주한지축제조직위원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허 작가를 포함한 '제28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전국한지공예대전 공모에 전통부문 29점, 현대부문 64점, 문화상품 및 기타부문 18점으로 총 111점이 접수돼 심사를 받았다.

심사에는 김삼기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한지공예 전문가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상에는 전통부문 허석희 작가의 '원앙장'이, 최우수상에는 현대부문 지정민 작가의 '결과 결'과 문화상품 및 기타 부문 이유빈

작가의 '중심'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대상으로 선정된 허석희 작가의 작품은 전통에 기반한 골격에 전체를 국화문으로 새긴 후 문자도(백수백복)를 배경에 장식한 전통 원앙장이라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현대부문 전영재 작가, 문화상품 및 기타부문 조은희 작가, 전통부문 박혜경 작가가 우수상을 받았고, 문홍관 작가, 박민욱 작가, 김영숙 작가, 윤영애 작가, 최진영 작가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전주한지문화축제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5월 5일 오후 7시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

한편, 올해 공모전부터 최우수상과 장려상의 시상금이 100만원씩 높아졌고, 장려상은 3점에서 5점 수상으로 전체 상금과 수상작 선정의 폭을 대폭 높였다.

입상작은 5월 5일 한지축제 개막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 될 예정이다.

/김윤성 기자 ·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내부 TF·전문가 TF 운영 등 심사제도 개선"

전북예총 '심각한 불공정 심사 규탄' 성명서와 관련 해명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예총의 '심각한 불공정 심사 규탄한다'라는 성명서와 관련해 해명을 내렸다.

이날 발표한 해명에 따르면 재단의 심사규정은 재단 내규가 존재하며, 전북예총에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또 전북예총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심사위원 풀(Pool)에 심사를 거쳐 구성했으며, 이번 2022년 심사에도 심사 당일 코로나 확진으로 1명이 불참했지만 최종 3명이 본 심사에 참여했다는 것.

특히, 도내 심사위원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단은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한 내규를 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 pool에 구성된 대학교수들은 학계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들로 구성돼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다.

2021년에는 426건 중 단체 246건, 개인 180건을, 올해는 452건 중 단체 224건, 개인 228건을 각각 차지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년 간 재단의 심사 관련 통계를 보면, 무용부문의 도외 심사위원이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심사위원에 위촉된 것이 유일한 연속 선정된 심사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의 문화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전라북

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과 협조해 실시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초로 예술지원과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예술인 복지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조사를 통해 예술가에게 보다 구체적인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TF와 전문가 TF를 동시에 운영해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단 관계자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이 예술가와의 끊임없는 소통 과정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전북예총을 포함한 모든 예술단체의 말에 귀 기울이며 모든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투어패스' 진안 꽃잔디동산 단독권 런칭 기념 이벤트

전북도가 지난 7일 진안 꽃잔디동산 입장권 단독상품 런칭을 기념해 오는 30일 진안 원영장 꽃잔디동산에서 전북투어패스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투어패스 고객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방문한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즉석 사진 촬영, 간단한 미션 참여 후 전북투어패스 캐릭터 기

념품을 증정한다.

진안 원영장 꽃잔디동산 오프라인 행사는 오는 30일 13시~15시에 진행된다.

전북투어패스 단독상품 판매는 전주 동물원, 익산 달빛소리수목원에 이어, 세 번째이다.

진안 꽃잔디동산 입장권은 현장 구매 및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제59회 법의 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부 회장 이종기 제2부 회장 박형운



회장 홍요섭

- 총무상임이사 최창용
- 재무상임이사 최민종
- 공보상임이사 우아름
- 인권상임이사 김석곤
- 교육상임이사 김현민
- 법제상임이사 홍민호
- 여성상임이사 국순화
- 군산상임이사 최선규
- 정읍상임이사 유택
- 익산상임이사 우관수

- 이사 강성명
- 이사 국윤호
- 이사 김학수
- 이사 남준희
- 이사 장석재
- 이사 김수태
- 이사 이연준
- 이사 임영준
- 이사 최경섭
- 이사 김성운
- 이사 김영호
- 이사 정용훈
- 이사 박성훈
- 이사 박궁태
- 이사 김완수
- 이사 김태훈
- 이사 이삼일
- 이사 이희

- 이사 박지원
- 이사 이보향
- 이사 이민호
- 이사 장충석
- 이사 박일지
- 이사 강성원
- 이사 김병진
- 이사 홍의진
- 이사 최성태
- 이사 홍호성
- 이사 홍경환
- 이사 주우리
- 이사 김주영
- 이사 김은강
- 감사 김동규
- 감사 김성중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시

고민을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으십니까?

나의 변호사(www.klaw.or.kr)를 클릭해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으로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와 업무 사례 등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사건의뢰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나의 변호사 서비스 검색을 통하여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법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준비한 서비스입니다.